

2014. 12.23.(화)

당직자 꺁회창

## 消防災難關聯 言論報道內容

구 분	계	보 도 내 용			
		긍정	부정	동정	일반
계	31	0	0	0	31
T V	3				3
신 문	28				28

京畿道消防災難本部

# 言論報道事項目次

## TV보도

순번	제 목	방송매체	페이지
1	가스보일러 누출, 잠자고 있던 일가족 참변...2명 사망	MBC 뉴스	1
2	버스 '꽉'...물탱크 '핑'...눈 온 출근길 '고생길'	SBS 뉴스	
3	당분간 큰 추위 없어	SBS 뉴스	

## 신문보도

순번	제 목	언론사	면수	페이지
1	KT, '119 통신망 사업자 선정' 생떼쓰기 '논란'	서울신문	027면	7
2	장관은 '화합' 하자지만 행정관료는 소방에 '갑질' 하는 국민안전처	경향신문	007면	8
3	수원소방서, 음주사고에 방을 위한 특별초빙교육	선경일보	004면	9
4	수원외국어고 가스냄새 대피 소동... 원인 불명	경기신문	019면	10
5	청렴 신뢰도 향상 특수공적 인정	중부일보	010면	11
6	광명소방서, 전통시장 특별지역대 소화기 전달	현대일보	014면	12
7	군포소방서, 불법 무허가 위험물 등 불시 단속	현대일보	015면	13
8	무허가위험물등불시단속	경기도민일보	004면	14
9	김포소방서, 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및 소방안전교육	내외일보	006면	15
10	김포소방서, 공사장 관계자간담회·소방안전교육	아시아일보	004면	16
11	청백리에서 배우는 청렴	인천일보	010면	17
12	성남소방서, 따뜻한 온정 담은 나눔장터 열어	경기매일신문	008면	18

순번	제 목	언론사	면수	페이지
13	성남소방서, 재활용 물품 '아름다운가게' 기부	경인매일	014면	19
14	세월호 생존학생 자살기도	경인일보	022면	20
15	세월호 생존학생 "친구보고파" 자살시도	한국일보	A10면	21
16	아름다운 겨울산, 그리고 안전한 산행	수도권일보	011면	22
17	아름다운 겨울산. 그리고 안전한 산행!	수도일보	010면	23
18	안산소방서-꿈의교회 재난 취약계층 안전 협약	기호일보	015면	24
19	안성소방서 제 1공단 특별지역대 발대 1주년 기념행사	아시아일보	004면	25
20	안성소방서, 제 1공단 특별 지역대 발대 1주년 기념행사	경도신문	010면	26
21	이천소방서, 소방전술경연대회장려상수상	경양일보	006면	27
22	이천소방서, 장려상 수상	선경일보	004면	28
23	여주소방서, 취약시기 관서장 특별순회교육 실시	선경일보	004면	29
24	일산소방서, 겨울 화재예방 앞장	일간투데이	014면	30
25	양평소방서, 주택화재 화재 발생	선경일보	004면	31
26	재)록수장학회, 올해장학금전달	경양일보	007면	32
27	주택화재예방소화기전달식	경기도민일보	005면	33
28	안병용 의정부시장, 119 한술밥 무료급식소 봉사	현대일보	008면	34



### 가스보일러 누출, 잠자고 있던 일가족 참변...2명 사망

요즘 난방기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남 의령에서 가스보일러를 켜고 자던 일가족이 가스에 중독돼서 그 중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집주인 70살 박 모 씨와 사위 42살 나 모 씨가 거실에 숨진 채 누워 있는 것을 이웃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문 다 열고.. 아무래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빌라 관리하는 총무한테 전화하고 119에 전화하고..."

박 씨 부인과 딸 등 나머지 가족 4명은 의식을 회복해 치료받고 있지만 모두 코 밑부분에 새카만 그을음 흔적이 발견돼, 가스보일러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 박 모 씨/피해자 ▶

"일어나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엉덩방아도 찢고 어지러워서..."

◀ 전상헌 / 경남 의령경찰서 형사팀장 ▶

"안에 연통이 조금 빠져있었습니다. 한 7cm 정도 빠져서 그 연기가 밖으로 못 나가고 보일러에 붙은 방에, 방으로 역류해들어가서..."

박 씨 부부와 딸 가족들은 지난 주말 저녁 함께 김장을 하러 모였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거실 전기장판 위에서 모여 자다 의식을 잃었고, 이틀 만에 발견돼 엉덩이와 등에 심한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겨울철이라도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배관통이 잘 연결됐는지 수시로 점검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훈입니다.

## 버스 '꽝'...물탱크 '핑'...눈 온 출근길 '고생길'

빙판길에 눈마저 내려서 고생스러운 월요일 출근길이었습니다. 오늘(22일) 하루 눈길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정전과 동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로등이 90도로 맥없이 꺾였고, 도로반사경은 산산 조각났습니다.

그 충격에 근처의 전깃줄도 여러 가닥 끊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수원 시내를 달리던 버스가 전신주와 가로등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어젯밤 얼었던 도로 위에 오늘 아침 눈이 내리면서 길이 매우 미끄러워져 사고가 난 겁니다.

버스 승객 20여 명 가운데 1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 승객 : 눈이 많이 왔잖아요. 갑자기 버스가 가다가 앞으로 확 쏠리면서, 기사는 '왜 이래, 왜 이래'하고...그러다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처 16가구가 5시간 동안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 연수구에서는 얼어붙은 내리막길을 가던 차량 세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수도 계량기도 모자라 물탱크가 터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다세대 주택 벽면이 고드름으로 덮였습니다.

[김성덕/피해 주민 : 팡 터지고 완전 폭포 흐르듯이...각 집마다 물도 못 쓰고 지금 답답한 심정이죠.]

빙판에 미끄러지는 낙상 사고는 오늘 서울에서만도 91건이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심조심 걸어야 했던 출근길,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신호 장치가 고장 나면서 45분간 지연 운행돼 불편을 더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임동국·배문산, 영상편집 : 윤선영, VJ : 이준영·도진택)



## 소방재난보도 (TV)

KBS, MBC, SBS 뉴스

2014. 12. 22(월)

### 당분간 큰 추위 없어

오늘 아침까진 추위가 매서웠지만 낮부터는 서풍이 불면서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오늘보다 6도 정도 높겠고, 한낮엔 5도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 지역에는 새벽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도는 아침에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지만 한낮엔 영상으로 오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엔 건조 경보가 계속되고 있어 조그만 불씨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영남 지역입니다.

한낮에 대구 7도, 부산 9도로 오늘보다 3~4도 정도 높겠습니다.

영남 지역에도 건조 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고, 전주와 광주의 낮 기온 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엔 중부지방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성탄절인 목요일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이번주 내내 예년 기온을 보여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 KT, '119 통신망 사업자 선정' 생떼쓰기 '논란'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의 '119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을 두고 KT가 일방적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KT는 지난 5월 발생한 이른바 '119 먹통' 사태의 장본인으로, 119 사업자로는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모절차 연기까지 요구하는 생떼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KT는 119 신고전화망 통합 작업 도중 오류가 발생했고 5분간 신고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119출동 지연으로 1명이 숨졌다.

22일 재난안전본부에는 따르면 재난본부는 올해 말 119정보통신망 사업자인 KT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132억원 규모의 '국가정보통신망 회선 서비스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규격공고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119 신고 등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을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으로, 재난본부는 지난 5년간 KT를 국가정보통신망 회선 서비스사업자로 선정해 119전화, 인터넷 등 KT통신망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말 계약이 종료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KT가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 할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KT는 지난 2010년 국방부에 로비한 혐의로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국가계약법상 지난 10월27일부터 내년 4월8일까지 입찰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본부는 KT를 제외한 SK와 LG 대상으로 2016년부터 5년간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KT는 SK, LG도 국방부에 로비한 혐의로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SK는 1개월, LG는 3개월간 공공기관과 입찰을 제한 받기로 돼 있는데, KT의 입찰제한 기간에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더불어 KT는 119 정보통신망은 도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로 모든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주장하며, 공모기간을 연장해 3개 통신사가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KT의 요구대로 공모를 연장할 경우 또 다른 특혜 논란이 일수 있다는 것이다. 132억원이 걸려 있는 사업인만큼, 공모연장이 SK와 LG측에서도 볼때 KT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긴급 회의를 열고 KT의 공모연장 요구에 대해 논의했으며, 재난안전본부는 법률 검토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3개 사업자가 공모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입찰 제한기간이 끝나더라도 다른 통신사의 입찰제한 기간이 남아 있어, 공모를 연장한다고 해도 3개 통신사 모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T의 요구는 일방적 특혜 주장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는 생떼 수준이란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입찰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KT가 특혜 주장을 하고 나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경향신문

## 기자메모[기자칼럼]장관은 ‘화합’ 하지만 행정관료는 소방에 ‘갑질’하는 국민안전처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은 지난 19일 출입기자단과의 상견례 간담회에서 ‘한지붕 세가족’으로 출범한 조직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조직융합TF’를 발족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지붕 세가족’을 넘어 ‘6가족’이라고 표현했다. 소방과 해경, 방재, 행정, 기술직 ‘5개 조직’에 군인(장·차관)까지 있는 ‘6가족’이라고 표현했다. 대한민국 정부조직에 이런 조직 자체가 탄생한 것이 신기할 정도지만, 장관이 “6개월 동안에 조직화합에 주력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심각성을 인지한 셈이다.

장관이 외부에서 ‘융합과 화합’을 강조했다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행정 관료들이 부처 내에서 소방조직에 ‘갑질’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소방안전특별세’ 운영을 행정관료들이 해야 한다는 논리를 개발, 장관의 목을 조르고 있는 모양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20일 행자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워크숍에서 “사람들(공무원)이 타성과 습관에 젖어서 장관들이 대통령이 변화와 실천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놔던 ‘적폐’가 국민안전처 내부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10월 31일 진통 끝에 멸절된 소방방재청을 해체, 국민안전처에 편입하면서 3가지 조건에 합의했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소방안전세’다.

내용을 보면 첫째는 중앙소방본부장(옛 소방방재청장)에게 예산과 인사의 독자성을 부여하고, 둘째는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한 소방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충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고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 행정관료는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젓밥에 눈이 먼 모습이다. 누가 봐도 ‘소방안전세’는 소방예산이다. 그리고 소방지휘부인 중앙소방본부가 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런데 안전정책실(옛 소방방재청 방재직렬+안행부 출신 관료)과 일반직이 장악한 기획재정담당관실이 서로 자기가 쓰겠다고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실이 탈락하고, 중앙소방본부와 안전정책실이 ‘2파전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소방안전세는 소방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소방관에게 쓰라고 생긴 세목이다. 그렇다면 합의서에도 명시된 것 처럼 현실을 잘 아는 중앙소방본부가 배분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매년 34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소방안전세는 오로지 시·도의 소방본부로 내려가 소방관의 처우개선에 쓰여져야 한다.

행정관료들이 배분권을 갖는다면 사용 연한이 지난 소방차와 구급차 교체는 요원하다. 재난현장의 대응 조직인 119 소방에 올 끝이 쓰여지지 않고 과거처럼 방재와 안전캠페인 등에 사용돼 예산낭비의 재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사이 소방관은 여전히 목장갑을 끼고 화재·구급·구조현장에 나가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기지 않는다. 소방방재청 시절 행정관료들이 구조·구급장비 외에 아무런 지원 없이 직원들을 격무에 내몰게 하는 각종 시책만을 양산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예전에 오죽했으면 소방관들이 ‘소방방해청’이라고 힐난 했을 정도였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의원도 “소방방재청은 현장 소방관들에게 앵벌이를 시키고 있다”고 했을 정도였다. 중앙 소방조직이 지방 소방조직을 지원하는데 있어 무능한 행태를 보여온 것이다.

새로 출범한 중앙소방본부 지휘부는 정치권이 인사·예산권도 주고 소방안전세도 만들어준 마당에서 예산을 지키지 못하면, 소방관은 실망의 나락으로 빠져 들 것이 불 보듯 하다. 지방 소방관들은 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가 독립된 예산권과 인사권을 정확히 행사하면서 대한민국 소방의 명실상부한 지휘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자리보전을 위해, 일반직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적당히 소방안전세에 대한 배분에 타협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소방안전세에 대한 배분권한을 행정관료들이 갖는 순간 국민은 또다시 불안해진다.



## 선경일보

2014년 12월 23일 화  
004면 사회

### 수원소방서, 음주사고에 방을 위한 특별초빙교육

수원소방서(서장 배석홍)는 22일 오전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월례조회에 참석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음주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초빙교육 실시하였다.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김민정 팀장을 초청하여 건강한 음주습관과 음주문화 정착에 관한 내용으로 1시간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실제 사례 위주로 교육하여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하여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타인의 또 다른 가족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초빙강사 김민정 팀장은 “건강한 음주습관과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과 체질에 맞게 주량을 정하고, 그 이상은 절대로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정광민 기자 skilbo@naver.com

# 수원외국어고 가스냄새 대피 소동... 원인 불명

## 학교, 학생 수백명 귀가조치·조기방학 결정 소방관·도시가스 관계자 조사 “누출은 없어”

지난 주말 수원 이의동에 위치한 수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냄새가 확인돼 학생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백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휴시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귀가조치 했지만 정작 아직까지도 정

확한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2일 수원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 13분쯤 수원 이의동 수원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주변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 소방관 16명이 현장에 출동

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기숙사 내 학생 300여 명을 대피시키고 (주)삼천리도시가스 관계자들은 학교 내 가스배관 등을 조사했지만 가스 누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 학교측은 이날 축제 준비를 위해 체육관에서 연습 중이던 학생들을 오후 9시쯤 귀가조치 시키고, 가스 냄새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조기 방학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가스 냄새에 대한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A씨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참지 못할 정도의 가스냄새가 났다고하면 어느 부모가 불안해서 학교를 보낼 수 있겠냐”며 “학교측에서 하루빨리 정확한 원인을 찾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을 안심시키는게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다.

수원외고 관계자는 “평소 정화조 냄새 등은 조금 났지만 어제 가스 냄새가 유난히 심해 삼천리도시

가스와 119에 신고했고, 안전사고를 대비해 학생들을 귀가시켰다”며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당초 예정된 방학을 앞당겨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측에서 가스 냄새 발생 관련 상황 보고를 했고, 시설팀에서 원인을 찾기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 청렴·신뢰도 향상 특수공적 인정

## 경기소방직 문선미

문선미(37) 소방장은 지난 200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평소 긍정적인 성격과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문 소방장은 임용 후 경기재난안전본부 1기 아나운서로 활동하는 등 각종 재난현장 생중계는 물론 경기소방뉴스와

홍보영상 제작과 다양한 소방안전 콘텐츠 개발로 소방의 귀와 입 역할을 해왔다.

특히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 추진으로 소방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화재예방 추진과 '소방해피콜 서비스' 등을 실시해 경기도민의 안전을 높이고, 외부청렴도 향상에도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문 소방장은 이 같은 실적을 토대로 지난 2013년 모범공무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청렴대책 발표대회 2년 연속 수상, 청렴경기 UCC 공모

대회 우수상 등의 특수공적을 세웠다.

이외에도 '사랑더하기 행복나누기' 봉사활동과 '이웃과 함께라면 기부행사', 재능기부 등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고 있다.



# 광명시 소식 이모저모



## 광명소방서, 전통시장 특별지역대 소화기 전달

광명소방서는 18일 오전 광명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장, 새마을시장 특별지역대에 소화기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봄 광명시장 특별지역대에 소화기 기증에 이어 2번째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겨울철 화재예방 및 유사시 대처능력 향상 등 전통시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했으며, 광명시장 특별지역대에 20개, 새마을시장 특별지역대에 30개 등 총 50개의 소화기를 전달했다.

광명소방서 김권운 서장은 "전통시장

내 화재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보다 더 유용하다며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특별지역대와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조민환 기자 newrule@daum.net

# 군포소방서, 불법 무허가 위험물 등 불시 단속



군포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위험물 규제질서 확립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및 불법 운반용기 단속 및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위험물시설 유무 확인, 허가받은 품명·수량 등 배수 확인, 위험물 이동탱크 허가 사항, 정기정검 기록표에 의한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 하며 특히 도로상에서 탱크로리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사회적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석유판매점의 배달용 홈로리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포/권영일 기자  
gyi@hyundailbo.com

# 무허가 위험물 등 불시 단속

## 군포소방서, 사회적 위협 요소 제거



군포소방서가 위험물 규제질서 확립을 위해 가두검사를 벌이고 있다.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 위험물 규제질서 확립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및 불법 운반용

기 단속 및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무허가 위험물시설 유무 확인, 허가받은 품명·수량 등 배수 확인, 위험물 이동탱크 허가사항, 정기점검 기록표에 의한 취급 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게 된다.

특히 도로상에서 탱크로리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사회적 위협 요

소로 대두되고 있어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석유판매점의 배달용 흡로리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충기 재난안전과장은 “위반자에 대한 단속 등 감독행정을 통한 엄정한 법 적용으로 위험물 법질서를 확립하고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포=김태영기자

## 내외일보

2014년 12월 23일 화요일  
006면 지역

### 김포소방서, 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및 소방안전교육

김포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지난 19일 풍무동 풍무2지구 공사장을 방문해 시행자 및 공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간담회는 대형 공사 작업현장이 산재하고 있고,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화기취급의 증가와 기온강하에 따른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간담회였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시행에 관한 사항, 용접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예방요령 등에 대한 간담회 실시 후 소방장 정해득은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 및 대피요령 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했다.

김포/이천구 기자

lck@naewoelbo.com

## 아시아일보

2014/12/23 화  
004면 사회

### 김포소방서, 공사장 관계자

#### 간담회·소방안전교육

김포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지난 19일 풍무동 풍무2지구 공사장을 방문해 시행자 및 공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간담회는 대형 공사 작업현장이 산재하고 있고,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화기취급의 증가와 기온강하에 따른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간담회였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시행에 관한 사항, 용접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예방요령 등에 대한 간담회 실시후 소방장 정해득은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 및 대피요령 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했다.

김유만 과장은 간담회에서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작업시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관리 감독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공사하는 직원 및 하청업체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며 “작은 부주의나 실수가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창섭 기자



내 생각엔



안기승

김포소방서장

청백리를 선발하고 표창하는 일은 고대 중국에서 시작됐다. 한나라 문제 12년(168년)에 염리(廉吏)를 선발해 표창하고 곡식과 비단으로 상을 준 것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고구려시대부터 청백리를 표창한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에는 총 218명의 청백리가 선발됐다.

청백리란 깨끗한 공직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로 조선시대에 특별히 국가에 의해 선발된 청백리안(淸白吏案)에 이름이 올랐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청백리는 죽은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염근리(廉謹吏) 혹은 염리라고 불렸으며 깨끗하고 유능한 관리를 뜻한다. 전남 장성에 있는 백비와 관련된 조선 3대 청백리 중 한분인 아곡(莪谷) 박수량(1491~1554) 선생이란 분이 있다. 정해공 아곡 박수량 선생은 명종 때의 이름난 신

여(愛民好與)에서 혜(惠)를 합하여 지었으며, 시호만 보더라도 청백리(淸白吏, 청렴결백한 관리)에 선정된 선생의 공직 생활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사후에도 칭받았던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모를 크게 하지 말고 비도 세우지 말라”고 유언했다.

부처 합동으로 ‘안전·보조금·취업’ 등 3대 우선적결 비리를 집중 조사한 결과 448건의 비리와 관련자 1732명을 적발했다는 뉴스가 각종 신문지면을 장식했다.

울 한해 전 국민을 슬픔에 빠트리고 희생자 가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힌 세월호 참사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해피아를 시작으로 대다수 정부 부처나 기관의 이름에 마피아를 붙여 만든 판피아 신조어가 난무하고 있다.

불과 몇백년 전의 일이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곡 선생의 삶이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38년이 나 되는 오랜 공직생활동안 백성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말은바 소임을 다하며 평생을 검소하게 살다간 선생의 일은 결코 퇴색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그 감동이 현재와 미래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청백리에서 배우는 청렴

하로 중종 9년(1514년) 과거 급제 후 호조·예조·형조·공조판서(장관, 정2품), 한성부 판윤(서울시장, 정2품), 의정부 좌·우참사(정2품), 함경도·전라도 관찰사(중2품) 등의 공직에 올랐다. 선생의 정혜(貞惠)라는 시호(諡號, 돌아가신 분에게 임금이 내려주는 호)는 ‘청렴결백하였다는 청백수절(淸白守節)에서 정(貞)’을, ‘백성을 사랑하여 백성이 천부모처럼 따랐다’라는 애민호

그의 죽음에 명종은 “모범으로 삼을 청백리가 떠났다”며 서해바다 좋은 암석을 골라 하사하였으며, “선생의 청백함을 새삼스럽게 비에 새긴다는 것은 오히려 그의 청렴함을 잘못 아는 결과가 될지 모른다” 하여 글씨를 새기지 않고 그대로 세웠다고 하여 지금의 백비(白碑)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이 체 두 달도 아니 되는 기간 동안 검찰 경찰 등 관계

## 성남소방서, 따뜻한 온정 담은 나눔장터 열어



성남소방서(서장 임국빈)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아름다운 나눔함'을 제작해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과 수익금을 모아 관내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

이번 나눔운동은 성남소방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일 성남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기증 물품 100여 점에 대해 '나눔장터'를 열어 장터에서 생기는 수익금과 물품 전부를 16일 관내 중원구 중앙동 소재 '아름다운가게'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임국빈 성남소방서장은 "이번 나눔운동이 관내 불우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눔이 지속적으로 확산돼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아름다운 나눔행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성남 = 김병관 기자



### 성남소방서, 온정 담은 나눔장터 개최

성남소방서(서장 임국빈)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아름다운 나눔함'을 제작해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과 수익금을 모아 관내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

이번 나눔운동은 성남소방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일 성남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기증 물품 100여점에 대해 '나눔장터'를 열어 장터에서 생기는 수익금과 물품 전부를 16일 관내 중원구 중앙동 소재 '아름다운가게'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임국빈 성남소방서장은 "이번 나눔운동이 관내 불우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눔이 지속적으로 확산돼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현기자

### 성남소방서, 재활용 물품 ‘아름다운가게’ 기부

성남소방서(서장 임국빈)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아름다운 나눔함’을 제작하여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과 수익금을 모아 관내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였다.

이번 나눔운동은 성남소방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일 성남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기증 물품 100여점에 대해 ‘나눔장터’를 열어 장터에서 생기는 수익

금과 물품 전부를 16일 중원구 중앙동 소재 “아름다운가게” 자선단체에 기부하였다.

임국빈 성남소방서장은 “이번 나눔운동이 관내 불우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눔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아름다운 나눔행사를 정기적으로 운

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성남 정현상기자

# 세월호 생존학생 자살기도

세월호 생존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1시 21분께 안산시 와동의 한 주택에서 박모(16·여) 학생이 쓰러진 것을 아버지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박양은 세월호에 탑승한 생존학

생으로, 이날 오후 9시께 병원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10분에 걸쳐 복용한 뒤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당시 박양의 왼쪽 손목에서는 자해흔적도 발견됐다.

박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안산/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 세월호 생존 학생 “친구 보고파” 자살 시도

## 생명엔 지장 없으나 치료·관리 구멍

세월호 생존학생이 자살을 시도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기소방본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1시 21분쯤 안산시 단원구 박모(16·단원고 2년)양의 집에서 박양이 약물을 과다 복용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박양은 어지럼증과 복통을 호소했고 왼쪽 손목에서는 눈썹정리용 칼을 이용해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찰과상이 확인됐다. 박양은 “오후 9시쯤부터 10여분간 H병원 정신과에서 처방한 약을 먹은 뒤 손목을 그었다”고 구급대원들에게 진술했다. 박양은 발견되기 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친구가 보고 싶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은 이날 오전 일반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에서 목숨을 건진 단원고 생존학생들은 이후 71일동안 병원과 연수원 등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심리치료를 받고 지난 6월 25일야 학교로 돌아왔다. 박양은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한 이후 딱히 우울이나 불안 증상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생존학생들에 대해 더욱 면밀한 심리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생존학생들 중 지금까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38명이다. 이들의 상태를 측정한 고대안산병원은 생존학생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사고 한 달이 지날 때까지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6개월이 지나면서 다시 악화했다고 최근 보고했었다. 한창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증상악화 시점에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추후 다른 스트레스 요인과 함께 작용할 경우 스트레스 증상이 만성화되거나 우울증,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이현구

안양비산199안전센터팀장  
소방경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인 우리나라에서 등산인구는 1800만명에 달한다. 국내에 이름이 있는 어느 산을 가던 산은 늘 등산객들로 북적적이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겨울은 더 없이 매력적인 계절일 것이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설산은 보는 이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한다. 눈으로 뒤덮인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분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올 겨울은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

설산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소식일 수 있겠지만, 아름다운 겨울산은 등산객들에게 쉬운 등반을 허락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만 발생한 산악안전사고를 살펴보면 총 사망자 67명, 부상자는 1316명에 이른다.

특히 겨울은 미끄러운 등산로와 저체온증 때문에 산악 사고가 가장 많은 계절이다. 겨울산행을 계획했다면 안전산행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산행에 임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겨울철 산행은 산행 전 반드시 등산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산행에 임해야 한다. 날씨, 등산 코스, 산의 지형적인 특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철저한 산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산행의 첫걸음이다.

다음으로는 산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낮아지므로 반드시 체온유지에 필요한 겨울용 등산복을

이젠 및 스틱도 필수다.

이밖에 길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나침반, 지형 지도를 반드시 챙기자. 올바른 등산로로 이동을 하더라도 가끔 쉬어가면서 수시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자.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왔던 길로 다시 가서 정해진 등산로를 찾아야 한다.

하산이 늦어질 때를 대비한 랜턴 및 예비건전지도 필수적인 준비물이다. 만일 산악사고가 발생

### 아름다운 겨울산, 그리고 안전한 산행

준비해야 한다.

겨울산행에서 치명적으로 위험한 행동중 하나는 청바지를 입고 산행을 하는 것이다. 청바지는 눈에 옷이 젖었을 때 방수기능이나 건조기능이 전혀 없다. 추운 야외에서 체온이 떨어질 경우 저체온증의 우려가 높다.

산행 전에 속내의는 등산전용 기능성 내의를 챙기는 것이 좋다. 내의가 땀에 젖었을 때 빠르게 땀을 발산해야지만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등산로에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아

한 경우 등산로에 표시된 위치표지판을 보고 119에 신고하면 구조대가 자신의 위치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고에 대비해 수시로 위치표지판을 보고 위치를 확인하면서 산행을 하자. 한국의 겨울산은 누가 봐도 아름답다.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산에서 안전사고를 당한다면 그 기억은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악몽이 될 것이다. 겨울철 안전산행을 위해 지켜야할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여 아름다운 겨울산행의 추억을 만들자.

기고

아름다운 겨울산. 그리고 안전한 산행!



이현구

경기 안양소방서 비산119안전센터장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인 우리나라에서 등산인구는 1800만명에 달한다.

국내에 이름이 있는 어느 산을 가던 산은 늘 등산객들로 북적인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겨울은 더 없이 매력적인 계절일 것이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설산은 보는 이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한다. 눈으로 뒤덮인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분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올 겨울은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

설산(雪山)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소식일 수 있겠지만, 아름다운 겨울산은 등산객들에게 쉬운 등반을 허락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만 발생한 산악안전사고를 살펴보면 총

사망자 67명, 부상자는 1316명에 이른다.

특히 겨울은 미끄러운 등산로와 저체온증 때문에 산악 사고가 가장 많은 계절이다. 겨울산행을 계획했다면 안전산행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산행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선 겨울철 산행은 산행 전 반드시 등산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산행에 임해야 한다.

날씨, 등산코스, 산의 지형적인 특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철저한 산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산행의 첫걸음이다.

다음으로는 산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낮아지므로 반드시 체온유지에 필요한 겨울용 등산복을 준비해야 한다.

겨울산행에서 치명적으로 위험한 행동중 하나는 청바지를 입고 산행을 하는 것이다. 청바지는 눈에 옷이 젖었을 때 방수기능이나 건조기능이 전혀 없다. 추운 야외에서 체온이 떨어질 경우 저체온증의 우려가 높다.

산행 전에 속내의는 등산전용 기능성 내의를 챙기는 것이 좋다. 내의가 땀에 젖었을 때 빠르게 땀을 발산해야 하지만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등산로에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젠 및 스틱도 필수다.

이밖에 길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나침반, 지형 지도를 반드시 챙기자. 올바른 등산로로 이동을 하더라도 가끔 쉬어가면서 수시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자.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왔던 길로 다시 가서 정해진 등산로를 찾아야 한다.

하산이 늦어질 때를 대비한 랜턴 및 예비전전지도 필수적인 준비물이다.

만일 산악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산로에 표시된 위치표지판을 보고 119에 신고하면 구조대가 자신의 위치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고에 대비해 수시로 위치표지판을 보고 위치를 확인하면서 산행을 하자.

한국의 겨울산은 누가 봐도 아름답다.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산에서 안전사고를 당한다면 그 기억은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악몽이 될 것이다.

겨울철 안전산행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여 아름다운 겨울산행의 추억을 만들자.



2014년 12월 23일 화요일  
015면 사람



### **안산소방서-꿈의교회 재난 취약계층 안전 협약**

안산소방서는 22일 꿈의교회와 업무협약(MOU)식을 갖고 상호 협력을 통해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으로 안전한 안산 만들기를 위해 마련됐다.

꿈의교회는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지원, 소방안전 캠페인 장소 제공과 참여, 심폐소생술·소방안전교육 참석, 화재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안산=최승필 기자 spc@kihoilbo.co.kr

### 안성소방서 제1공단 특별지역대 발대 1주년 기념행사

안성소방서(서장 임정호)는 지난 19일 오후 14:00경 안성 제1공단 특별지역대 발대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성 1공단 특별지역대는 공단근로자 중심의 자율적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발대가 되었고, 소방안전관리자 위주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대원간 상호 정보교류를 통하여 소방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며, 안전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용 국회의원, 이영찬 안성시의원 등 많은분들이 참석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제1공단 특별지역대는 1주년 행사를 기념하며 화재피해주민 자녀 3명에

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제1공단 감창권 특별지역대장은 "제1공단의 소방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맡은바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며, 안성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편종국 기자

# 경도신문

2014년 12월 23일 화요일  
010면 소방/복지

안성소방서, 제 1공단 특별  
지역대 발대 1주년 기념행사

**【안성】** 안성소방서(서장 임정호)는 지난19일 오후14:00경 안성 제1공단 특별지역대 발대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성 1공단 특별지역대는 공단근로자 중심의 자율적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발대가 되었고, 소방안전관리자 위주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대원간 상호 정보교류를 통하여 소방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며, 안전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고 있다.

박금용기자

kum358@kyungdoilbo.com

## 경양일보

2014년 12월 23일 화요일  
006면 사회

### 이천소방서, 소방전술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이천소방서(서장 조승혁)는 '2014년도 소방관서 소방전술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소방관서의 소방전술능력 숙달을 통한 현장에 강한 소방관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34개 소방서가 참가해 3개 종목(고가차 조작능력, 화재진압 4인조법, 지하층 인명구조)을 경연한 결과 종합순위 3위에 입상해 상패와 포상금을 받았다.

또한, 입상한 소방관서는 국민행복안전정책 평가점수에도 반영된다.

조승혁 서장은 "직원들의 땀으로 이뤄낸 입상을 진심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조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덕영 기자

# 2014년도 소방관서 소방전술 경연대회 이천소방서, 장려상 수상



이천소방서(서장 조승혁)는 “2014년도 소방관서 소방전술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소방관서의 소방전술 능력 숙달을 통한 현장에 강한 소방관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34개 소방서가 참가하

여 3개 종목(고가차 조작능력, 화재진압 4인조법, 지하층 인명구조)을 경연한 결과 종합순위 3위에 입상하여 상패와 포상금을 받았다.

또한, 입상한 소방관서는 국민행복 안전정책 평가점수에도 반영된다.

조승혁 서장은 “직원들의 땀으로 이뤄낸 입상을 진심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기성 기자  
skilbo@naver.com



## 여주소방서, 취약시기 관서장 특별순회교육 실시

여주소방서(서장 홍영근)는 22일부터 양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탄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를 맞아 특별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은 성탄절, 연말연시 등 잦은 모임으로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소방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안전의 파수꾼으로 거듭나고자 실시됐다.

순회교육의 내용으로는 ▲ 연말연시(성탄절) 등 취약시기 청렴향상·공직기강 확립 ▲ 음주운전 등 소방

행정 발전 저해요인 사전 예방 ▲ 출동태세 확립 및 겨울철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 ▲ 현장활동대원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관리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이다.

여주소방서 홍영근 서장은 “올한해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얼마 남지 않은 2014년도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전직원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정기성 기자

skilbo@naver.com

# 일산소방서, 겨울 화재예방 앞장

## 위험물·소방시설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일산소방서(서장 서은석)는 19일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위험물·소방시설관련업체 관계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일산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일산지역 위험물·소방시설관련업체 관계자와 예방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선진화된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개최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선 ▲ 겨울철 화재 예방 협업 사항 안내 ▲ 위험물시설 자율안전·화재예방관리 개선방향 ▲ 소방시설 등 설계·시공에 부실요소 방지 방안 ▲ 소방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건의·애로사항 ▲ 기타법령



사항 안내 등이 진행됐다.

한편, 일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업 관계자에게) 소방대상물에 입점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에 일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서은석 서장은 “소방관련업체의 부실시공 및 관리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조병언 기자

# 양평소방서, 주택화재 화재발생

## 옥천면 신복리 주택 화재

양평소방서는 "12월 19일 14:13분 경 옥천면 신복리 부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인명피해 없이 진화하였다"고 밝혔다.

신고자인 이00 말에 의하면 "00

방면 맞은편에 있다가 검은 연기가 보여 119에 신고했다" 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양평소방서는 53명의 소방관과 15대의 차량을 출동시켰다. 선착대인 옥천지역대(소방위괄구성)가 5분 만에 현장도착하여 미처 화재를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았으며,

화재 발생 10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완전히 진화되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 가정 및 직장에서의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전했다.

이현우 기자 skibo@naver.com





## 재)록수장학회, 올해 장학금 전달

### 광주 소방공무원 자녀 등 20명 1400만 원 전달

재단법인 록수장학회(이사장 3층 중회의실에서 소방관 자녀 20  
 염홍섭 ㈜서산 회장)는 19일 시청 명에게 2014년도 록수장학금

1400만 원을 전달하고 소방관 2명  
 에게 특수상을 전달했다. 특히 록  
 수상과 상패 및 상금 각 100만 원  
 시상했다.

올해 록수장학금은 수상자는  
 모두 일선 소방관 자녀들로 중학  
 생 10명, 고등학생 5명, 대학생 5  
 명 등 총 20명이다.

전국 유일의 소방관 자녀 장학  
 회인 록수장학회는 지난 1974년  
 광주지역 기업인 등 10명이 '영  
 원불변'을 뜻하는 록수(綠水)회  
 를 설립해 1976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1994년부터는 재단법인  
 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장학사업  
 을 펼쳐 지난해까지 소방관 자녀  
 등 893명에게 장학금 2억5000만  
 원을 전달했다.

염홍섭 록수장학회 이사장은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  
 는 소방관들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다"라며 "앞으로 록수장학  
 회를 더욱 활성화해 광주시 장학  
 사업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  
 다"라고 말했다.

/이성필기자

# 주택 화재예방 소화기 전달식

## 파주소방서, 문산읍 사목3리 마을회관서

파주소방서(서장 김조일)가 22일 파주시 문산읍 사목3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과 북부소방안전협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달 적성면 율포리에서 실시한 '화재 없는 안전마을 행사'에 이어 겨울철 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이 부족하거나 원거리 지역,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는 북부소방안전협회에서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기증식에 이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소화기 사용법 등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김조일 서장은 "겨울철 주택 화재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단 한 건의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가



파주시 문산읍 사목3리 마을회관에서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전달식'을 갖고 있다.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성훈기자



## 안병용 의정부시장, 119 한솔밥 무료급식소 봉사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9일, 의정부시 가능역 광장에 위치한 119 한솔밥 무료급식소를 찾아 온정이 필요한 취약계층,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봉사를 실시하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주관하는 119 한솔밥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은 의정부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 이은숙 대표를 비롯한 한국자유총연맹, 해병전우회, 종교시설, 개인 봉사자 등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참여, 1일 평균 350명이 넘는 급식활동으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 중 주한 미2사단 Green Arcleanna 등 장병 4명이 정기적으로 매주 금요일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행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